

1945-1975년 캠퍼스 배치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ite Planning
of Korean Campus in Seoul from 1945 to 1975

1. 머리말

대학교육은 일제식민지하에서는 고등교육 억압정책에 의하여 일제 관학에 의해서 일부 시행되었으나 해방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서울에는 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지방에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설립된다. 해방이후에서부터 1955년까지 설립 및 승격된 대학기관은 대표적인 대학으로 자리잡게 되며, 대학교육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대학은 50년대부터 본격적인 캠퍼스를 건설하여 70년대가 되면 명실상부한 캠퍼스를 가진다. 대표적인 캠퍼스로는 서울대 관악산종합캠퍼스, 공대 공릉동캠퍼스, 고려대 인암동캠퍼스, 연세대 대신동캠퍼스, 성균관대 명륜동캠퍼스, 동국대 필동캠퍼스, 경희대 회기동캠퍼스, 서강대 신수동캠퍼스를 들 수 있다.

본고는 이들 캠퍼스의 입지유형을 추출하여 캠퍼스 배치계획적 측면에서 입지유형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배치의 공간요소별 공간유형을 추출하고 그의 건축계획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예비적 고찰

1) 대학교육정책

해방이후 미군정하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미국식 고등교육제도를 새로운 고등교육 발전의 모형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 말기에 폐교된 사립 고등교육기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再 開校하였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된다. 1948년 정부수립시까지 3년동안 서울대학교의 발족을 비롯하여 모두 42개 대학이 승격, 신설된다.

1950년대 전반기에는 3년간에 걸친 전쟁과 그후의 복구, 재건의 시기로서 교육계에도 전반적으로 복구와 재건에 힘을 기울였다. 전시하에서도 대학의 설립과 승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방 국립대학이 창설되고 많은 사립대학이 설립 인가됨으로써 대학설립의 붐이 조성되었다. 1955년에 제정, 공포된 대학설치기준령은 대학을 설치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교수의 기준을 명시하여 50년대 후반기에는 대학의 신설이 억제되고 기존대학의 정비와 함께 승격이 이루어진다.

1960년대에는 기존 대학들이 내실을 다지게 된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시설들이 건설된다. 이 시기는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발달과 통제정책의 강화를 교육정책의 기조로 하였다.

2) 각 대학의 변천과정

1946년 8월 美軍政法令 제102호로 서울대학교가 인가·발족되었으며, 동년에 발족된 3개의 사립 종합대학교는 고려대학교, 연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었다. 이들 학교들은 구한말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 고등교육의 源流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1946년 6월에 서울대학 종합대학안이 문교부에 의해서 발표되었으며, 이 학교는 京城大學, 경성경제전문, 경성치과전문, 경성법학전문, 경성광산전문, 경성사범, 경성여사범, 경성공업전문, 수원농림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종합대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 대학교는 대학 캠퍼스가 분산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서로 역사와 배경을 달리하는 단과대학들이 통합되어 종합대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가진 일종의 聯合大學과 유사한 대학운영을 지속해 왔다. 이에 1960년대 말이 되면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통합운영하여 종합화하는 구상이 구체화되며, 1975년 관악산 서측기슭에 위치한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하게 된다.

보성전문학교는 1946년에 고려대학교로 개칭되고 종합대학교로 인가된다. 고려대는 일제시기부터 성장한 본부캠퍼스와 해방이후 형성된 공대 애기능캠퍼스로 이루어졌다.

연희전문은 1946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어

李榮漢

(주)아키프렌 종합건축

By Lee, Young-Han

연희대학교가 된다. 1957년에는 연희대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병합되어서 연세대학교가 되고 신촌에 종합 캠퍼스를 가진다.

조선시대 성균관은 일제시대 명륜전문학교로 개편되며 해방이 되면서 1946년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으로 승격·개편된다.

新興初級大學은 1946에 설립된 培英大學館과 1947년에 설립된 新興專門館을 併合하여 1949년에 2년제 학교로 발족된다. 이 학교는 1952년에 4년제의 신홍대학으로 승격인가되며 1953년 동대문구 현 교지를 확보한다. 1955년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며 1960년에는 경희대학교로 개명된다.

한국가톨릭교회는 한국에서 대학설립을 받기하며 고오비 12세 교황은 이를 允許하여 대학창립이 기획된다. 1957년에 마포구 新水洞 토지를 구입하고 1960년에 서강대학이 설립·인가된다. 이 학교는 1969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개편된다.

3) 대학캠퍼스계획 관련 건축가

8. 15해방과 함께 건축설계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일제시대 관청의 영선조직에 의해서 설계된 건물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이 개인설계사무소를 중심으로 하여 설계된다. 일제말기, 미 군정기, 대한민국 수립후에 관청의 건축조직에서 근무하던 자들은 관청을 퇴직하고 시공청부회사나 개인설계사무소를 개설한다. 일본에서 설계사무소나 시공청부회사에서 근무하던 건축인력들이 해방을 전후하여 귀국하여 개인설계사무소나 청부회사를 개설한다. 그리고 해방이후 대학의 건축과를 졸업한 세대들이 50년대부터 건축계에 등장하여 의욕적으로 설계활동을 하게 된다.

50, 60년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건축가들은 대학캠퍼스계획에 관여한다. 50년대 한국건축계에는 큰 설계 프로젝트들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시설은 이 시기 건축가들에게 자신의 건축적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러한 건축가로는 朴東鎭, 李天承, 金正洙, 李喜泰, 金熙春, 金台植, 車景淳, 鄭寅國, 宋旼求, 金重業, 李光魯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이 시기 한국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건축가들이었다.

이 시기 건축가들은 일정한 건축양식을 자기의 건축으로 하지 않았으며 현대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건축을 설계하면서 道家的 自然主義思想이나 전통건축의 內的 秩序를 계승하는 건축적 태도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의 건축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앞에는 따라야 할 건축모델이 없었으며 있었다더라도 막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3. 입지유형의 분석

1) 각 학교의 입지분석

서울대는 일제시기에 있었던 관립 전문, 관립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하여 설립됐기 때문에, 본부 및 문리대는 동승동, 의대는 연건동, 치과대는 소공동, 공대는 공릉동, 상대는 중앙동, 사범대는 을지로5가에 자리잡게 된다. 그러다가 기존 캠퍼스규모로 인한 성장의 한계와 캠퍼스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종합화하기에 이른다. 몇개의 후보지역중에서 관악산 기슭지역을 1970년 신캠퍼스부지로 최종선정하였다. 이 지역을 학교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로 서울시 중심부로부터 15km 이내에 위치하고, 둘째로 漢水이남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일치하며, 셋째로 학교시설부지가 107만평이고 주변에 농대 연습림이 인접하여 광범위한 활동영역을 보유하며, 넷째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다.

단국대학은 1947년 낙원동 282번지에서 설립되며 1949년 성동구 신당동 49-15로 이전하고 1959년에 한남동으로 이전한다.

조선정치학관(후에 건국대)은 1946년 낙원동 오성학교 교사에서 설립되며 1956년 성동구 毛陳洞으로 이전한다.

弘文大學館(후에 홍익대)은 1946년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興國寺에서 설립된다. 이 학교는 중구 栞洞에 위치한 덕우사,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인보관, 용산구 문배동 24-8번지로 이전을 하게 된다.

전후 1954년에는 중구 남산동 1가, 樓上洞, 仁寺洞, 3개의 캠퍼스로 분리·운영하다가 1955년에 마포구 上水一洞 산1-1번지로 이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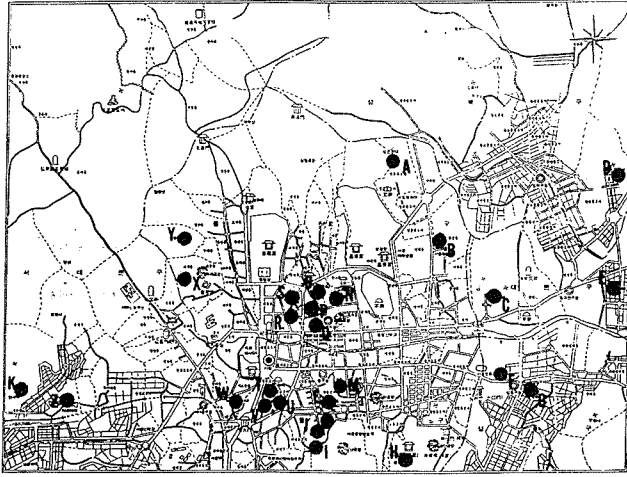
서울가정보육사범학교(후에 수도여사대)는 1948년

일본에서 설계사무소나 시공청부회사에서 근무하던 건축인력들이 해방을 전후하여 귀국하여 개인설계사무소나 청부회사를 개설한다. 그리고 해방이후 대학의 건축과를 졸업한 세대들이 50년대부터 건축계에 등장하여 의욕적으로 설계활동을 하게 된다.

〈표 1〉 각 캠퍼스의 설계에 관여한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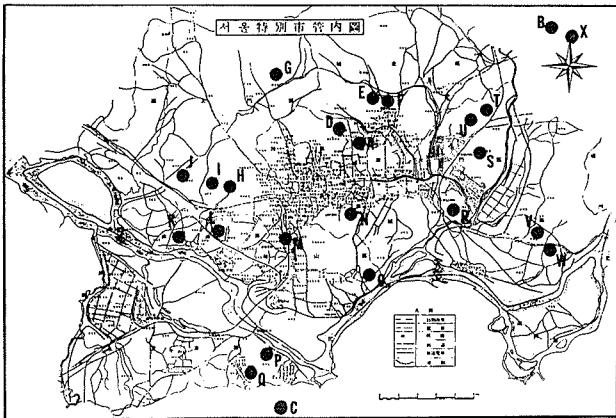
建築家	設 計 建 物
金正洙	서강대 과학관, 연세대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金台植	성균관대 석조전, 본부, 경상대, 서울농대 수의학과 실험실
金熙春	서울농대 신교사 및 강당, 서울대 공학도서관, 건국대 본관, 국민대 제1호관
鄭寅國	홍익대 본관
金重業	서강대 본관
車景淳	중앙대 우남도서관, 파이퍼홀
宋旼求	동국대 석조전, 과학관, 본부, 도서관, 서강대 도서관
李喜泰	서강대 교수회관, 리찌과학관, 강당
李光魯	서울공대 과학관, 교양학부 교사, 전력연구소, 서울문리대 이학부교사, 숙명여대 과학박물관

- A: 성균관대 영문동
- B: 서울대 본부 동숭동
- C: 동덕여대 청신동
- D: 고려대 인암동
- E: 서울사대
- F: 국제대
- G: 단국대 신당동
- H: 동국대 필동
- I: 국민대 남산동
- J: 홍문대학관 남산동
- K: 연세대 대신동
- L: 서울가정보육사범학교 종무로
- M: 홍문대학관 저동
- N: 덕성여대 운니동
- O: 홍문대학관 인사동
- P: 건국대
- Q: 한국의국어대 종로2가
- R: 국민대 내수동
- S: 단국대 낙원동
- T: 신흥초급대 소공동
- U: 서울치대 소공동
- V: 서울고등기정학교북청동
- W: 서울문리사대 서소문동
- X: 홍문대학관 사직동
- Y: 홍문대학관 누상동
- Z: 이화여대 대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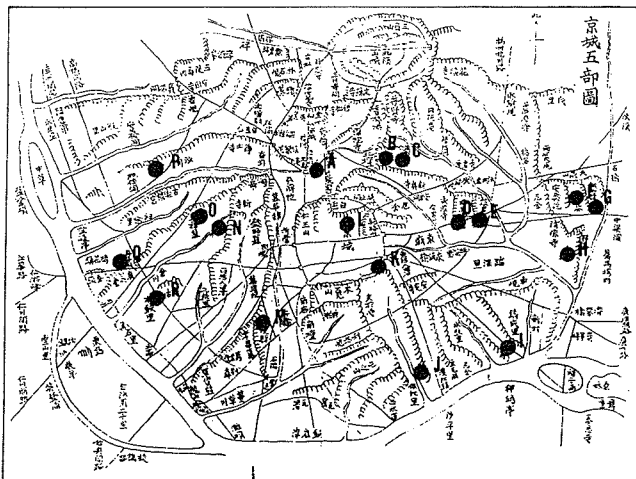
[도 1] 초반기의 각 학교의 행정지리적 입지현황

- A: 카톨릭대
- B: 서울공대 공릉동
- C: 서울대 신림동
- D: 성균관대 영릉동
- E: 국민대 정릉
- F: 우석대 정릉
- G: 상명여대 홍지동
- H: 이화여대 대현동
- I: 연세대 대신동
- J: 명지대 남가좌동
- K: 홍익대 상수동
- L: 서강대 신수동
- M: 숙명여대 청파동
- N: 동국대 필동
- O: 단국대 한남동
- P: 중앙대 흑석동
- Q: 숭실대 상도동
- R: 한양대 흑석동
- S: 서울농업대 전농동
- T: 한국의국어대 이문동
- U: 경희대 회기동
- V: 수도여사대 군자동
- W: 건국대 모전동
- X: 서울여대 매동



[도 2] 각 학교의 행정지리적 입지현황

- A: 상명여대 홍지동
- B: 국민대 정릉
- C: 수도의과대 정릉
- D: 고려대 공대 인암동
- E: 고려대 본부 인암동
- F: 경희대 회기동
- G: 한국의국어대 이문동
- H: 서울농업대 전농동
- I: 한양중대 향당동
- J: 단국대 한남동
- K: 동국대 필동
- L: 성균관대 영문동
- M: 상명여대 청파동
- N: 이화여대 대현동
- O: 연세대 대신동
- P: 명지대 남가좌동
- Q: 홍익대 상수동
- R: 서강대 신수동



[도 3] 서울의 산맥과 각 캠퍼스의 입지

종무로 2가에 위치한 제헌국회의원 회관건물에서 설립되며 1962년에 군자동으로 이전한다.

신흥초급대학(후에 경희대)은 1949년에 소공동 각황사에 위치하며 1953년에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로 이전한다.

국민대는 1946년 종로구 내수동 145번지에 위치한 보인상업학교에서 설립되며, 1947년 중구 남산동 東本原寺로 이전하고 1948년에 昌成洞 117번지로 이전한다.

한국의국어대학은 1954년 종로2가 영보빌딩에서 개교되며 1957년 동대문구 이문동으로 이전한다.

서강대학은 1960년 마포구 신수동에서 설립된다.

2) 정소유형의 분석

장소유형은 6.25전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다. 전쟁전에는 기존의 학교나 일본인의 적산가옥에 위치하였으며, 전쟁후에는 신캠퍼스를 건설하는데, 주로 산을 배경으로 하는 기슭에 위치한다.

초기의 敵産建物型은 본격적인 캠퍼스의 규모를 갖지 못하였으며 소규모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정도였다. 초기에 학교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은 종무로, 을지로, 중구, 용산구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일본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일본인 중심의 시가지였다. 일제의 패망과 일본인의 귀국으로 그들 소유의 건물과 가옥은 소유의 계승이 혼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장소에 학교를 설립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학교는 적산건물 중에서 일본인 불교사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홍문대학관의 홍국사, 덕우사, 신흥초급대학의 각황사, 국민대의 동본원사가 그 예이다. 이들 사찰은 실내의 집회공간과 옥외마당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교사로서의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후에 건설된 캠퍼스는 산에서 캠퍼스가 위치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여 학교의 부지로 정한다.

전쟁으로 기존 서울은 크게 파괴되고 도시계획의 집행도 문란하게 된다. 사유지나 사유지등 公共地가 개인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점유된다. 이런 와중에 고등교육기관은 서울시내에 있는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공원용지를 신 캠퍼스의 부지로 점유하며 캠퍼스의 성장과 함께 그 주변의 대지를 매입하여 교지를 확장하며 간다.

이들 캠퍼스의 지형상 특성은 산의 구릉상에 위치하거나 산의 능선이 내리뺨은 구릉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곡, 또는 산 기슭에 위치한다. 특히 캠퍼스의 이상적인 장소는 風水상으로 四神이 相應하는 장소로, 각 학교는 이러한 장소를

물색하려고 노력하였다.

서울의 산맥은 北漢山을 主脈으로 하여 남으로 내려오다가 白岳에서 일단 멈추고 돌아서 木覓山을 이루며, 또 한 갈래는 母岳에서 독립적인 산맥을 이룬다. 이러한 서울의 산맥은 대학의 입지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우선 眞山인 北岳의 主줄기에는 국민대 정릉캠퍼스, 수도의과대학 정릉캠퍼스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 줄기에서 동으로 뻗어내린 두 줄기중에서 밖에 있는 줄기에는 한국외국어대 이문동캠퍼스, 경희대 회기동캠퍼스, 서울농업대 전농동캠퍼스가 입지하고 있으며 안에 있는 줄기에는 고려대 본부캠퍼스와 공대캠퍼스가 입지하고 있다. 서쪽으로 뻗은 줄기에는 명지대 남가좌동캠퍼스, 상명여대 홍지동캠퍼스가 위치한다. 그리고 白岳 밑에는 성균관대 명륜동캠퍼스가 위치한다.

母岳이 남서방향으로 내리뻗은 두 줄기중에서 위쪽에 있는 줄기에는 연세대 대신동캠퍼스와 홍익대 上水洞캠퍼스가 있으며, 아래쪽에 있는 줄기에는 이화여대 大峴洞캠퍼스가 있다. 이 두 줄기 사이에 솟아 있는 老姑山에는 서강대 신수동캠퍼스가 위치한다. 모악이 남쪽으로 내리뻗은 줄기에는 숙명여대 청파동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목덕산의 줄기가 동쪽으로 뻗은 줄기에 학교들이 위치하는데 동쪽으로 뻗다가 남쪽으로 구부러지는 지점에 동국대 필동캠퍼스가 위치하며, 다시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줄기에 단국대 한남동캠퍼스, 한양대 행당동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3) 입지향 분석

서울소재 대학캠퍼스는 북한산, 목덕산, 모악을 주봉으로 하는 줄기에 입지한다. 이들 산의 줄기가 동서로 뻗은 줄기의 경우에는 줄기의 남쪽에 학교를 입지시켰으며, 남북으로 뻗은 줄기에는 줄기의 양측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북측 경사면에는 입지하지 않는다.

이들 캠퍼스는 불규칙한 곡선도로에 의해서 진입되므로 진입도로가 캠퍼스의 배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입지향을 고려한 산의 경사지에 학교부지를 선정하였다. 전체 캠퍼스의 80% 이상이 남향이나 남동향 및 남서향 경사지에 입지하였으며, 특히 남향 경사지에 입지하는 캠퍼스는 전체 캠퍼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대학캠퍼스는 남향을 전면으로 하는 경사지형을 선호하여 입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배치유형의 분석

1) 각 캠퍼스의 배치분석

서울대 관악산캠퍼스 건설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캠퍼스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대학교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대학캠퍼스 계획의 역량이 총집결되고 새로운 캠퍼스계획의 모델이 되었다. 종합배치계획은 공간계획, 부지분석, 동선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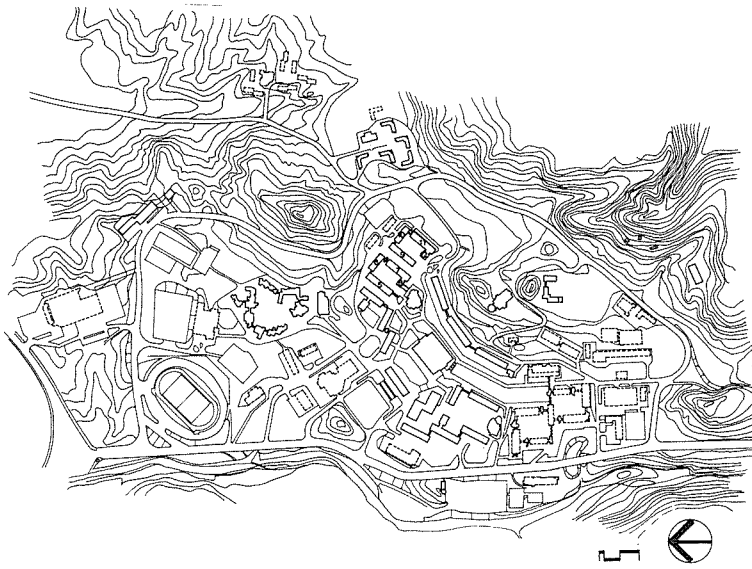
캠퍼스배치는 충분한 지형조사를 토대로 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지형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악산의 정상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뻗어내리는 능선을 중심으로 하여 배치한다. 이 주 능선의 좌우 계곡에는 수영장과 댐을

<표 2> 公園用紙에 立地한 大學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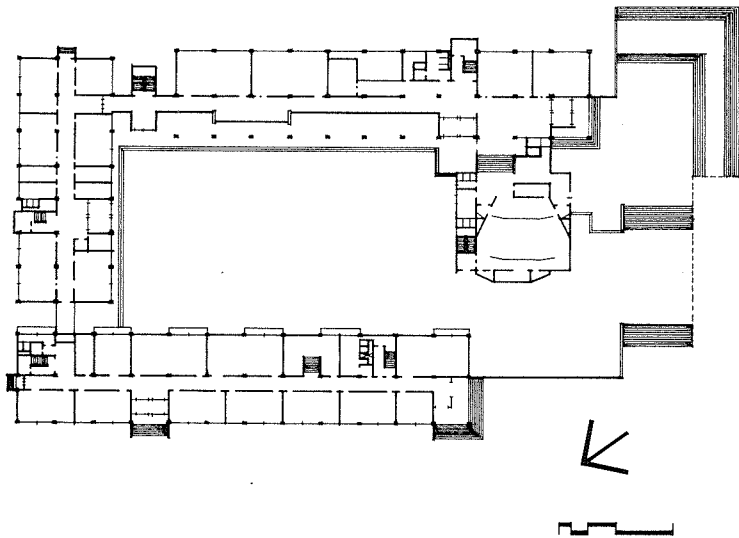
학 교 명	공 원 명
成均館大學校 明倫洞 캠퍼스	臥龍公園
東國大學校 筆洞 캠퍼스	桀忠公園
淑明女子大學校 靑坡洞 캠퍼스	孝昌公園
弘益大學校 上水洞 캠퍼스	臥牛公園
漢陽大學校 杏當洞 캠퍼스	沙斥公園
梨花女子大學校 新村 캠퍼스	雙龍道路公園

<표 3> 各 學校 캠퍼스의 立地向

立地向	學校 캠퍼스名	前面道路向	地 形 向
南	경희대 회기동 캠퍼스	현재 : 불규칙	남향 경사지
	단국대 한남동 캠퍼스	현재 : 남서-북동	남향 경사지
	명지대 남가좌동 캠퍼스	동-서	남향 경사지
	서울시립대 전농동 캠퍼스	불규칙	남향 경사지
	상명여대 홍지동 캠퍼스	불규칙	남향 경사지
	서울여대 태능 캠퍼스	남서-북동	남향 경사지
	국민대 정릉 캠퍼스	현재 : 남동-북서	남향 경사지
南 東	고려대 공대 캠퍼스	남서-북동	남동향 경사지
	수도의대 정릉 캠퍼스	현재 : 남동-북서	남동향 경사지
	성균관 명륜동 캠퍼스	남-북	남동향 경사지
南 西	서강대 신수동 캠퍼스	남-북	남서향 경사지
	승전대 상도동 캠퍼스	동-서	남서향 경사지
	한양대 행당동 캠퍼스	불규칙	남서향 경사지
	성신여사대 돈암동 캠퍼스	남-북	남서향 경사지
東	한국외국어대 이문동 캠퍼스	현재 : 남서-북동	동향 경사지
西	홍익대 상수동 캠퍼스	현재 : 남-북	서향 경사지
北 東	동국대 필동 캠퍼스	불규칙	북동향 캠퍼스
南 北	서울대 신림동 캠퍼스	불규칙	북서향 경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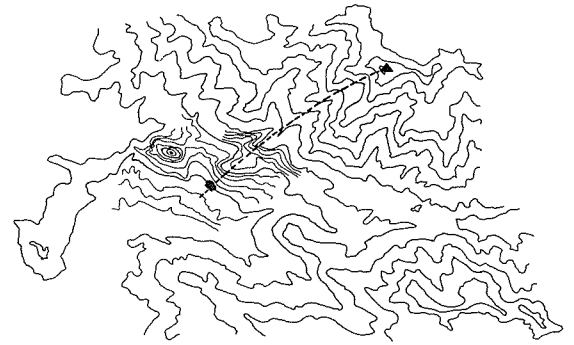
[도 5] 서울대 관악 캠퍼스 배치도



[도 6] 서울대 관악 캠퍼스 5,6,7,8,棟 배치도

설치하고 있으며 더 내려온 지점에 천문대와 교수회관이 위치한다. 이 능선이 하향하여 본관 앞에 있는 동산과 교수회관을 연결하는 축상에 중심적인 건물인 도서관, 본관을 배치하고 본관과 전면동산사이에 광장을 조성하였다. 이 주능선상에 배치된 일련의 건물은 등고선을 따라서 일렬로 배치되었다. 주능선 좌우에는 계곡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계곡상에 배치되는 건물은 튼 □자형 블록배치를 보여준다.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중정형배치에서 남쪽에 면하는 건물인 소형강당은 주변건물에 비하여 매스가 작아서 중정부문을 밝게 하였다.

고려대 안암동 본부캠퍼스는 애기능이 동남측으로 뻗어 내린 능선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캠퍼스는 1930년대에 계획된 뒷산과 본관, 그리고 도서관, 강당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골격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하게 된다. 1954년에는 금란실(C)이 본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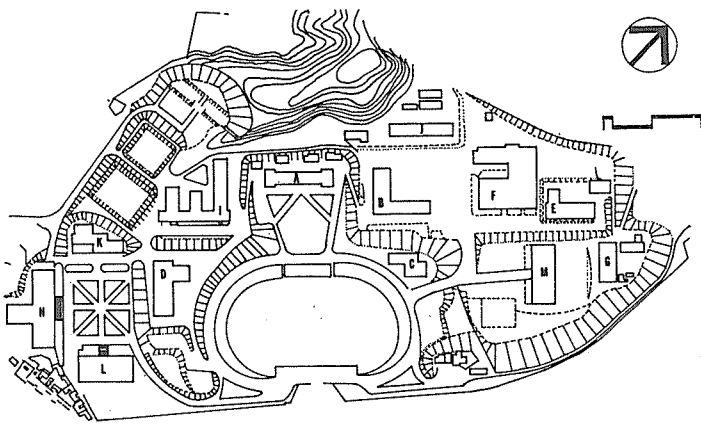


[도 4] 서울대 관악 캠퍼스의 지형적인 입지

우측전면에 배치되며, 1956년에는 강당(D)이 본관 좌측 전면에 배치되어 본관을 중심으로 하여 전면에 좌우에 배치된다. 도서관(F), 농림대 교사(E), 사범대 분관(G)이 56년~58년에 준공되면서 본관 우측에는 증축된 도서관, 농림대 교사, 사범대 분관, 금란실에 의하여 중정이 이루어진다. 60년대에 서란(I)의 좌측 저지대에 과학관(N), 홍보관(K)이 준공되고, 71년에는 학생회관(L)이 준공되면서 이들 건물과 강당에 의해서 튼 □자의 블록배치가 이루어진다.

연세대 캠퍼스는 일제시대 계획된 마스터플랜을 골격으로 하여 발전하게 된다. 50년대에 청경관, 광복관, 연희관, 도서관, 과학관, 대강당이 건축되면서 백양로를 중심축으로 하는 캠퍼스 배치개념이 강화된다. 즉, 이 중심축상에 주변 건물에 비하여 규모가 큰 과학관(G)을 배치하고 중심축 좌우에 대칭적으로 건물이 배치되서, 과학관-언더우드관(B)-스팀스홀(A)과 아펜젤러홀(C)-환경관(E)과 노천극장-핀스홀(D)과 도서관(I)-광복관(H)과 대강당(J)순으로 아래로 배치된다. 60년대가 되면 과학관 주위에 성암관(K), 유억겸기념관(O)이 건축되면서 이들 건물과 언더우드홀은 중정형 배치를 이루게 된다. 해방이후의 캠퍼스배치의 특성은 50년대에는 일제시대 배치골격에 충실히 배치되어 축성을 강조하였으나 60년대가 되면 중정형배치가 국부적으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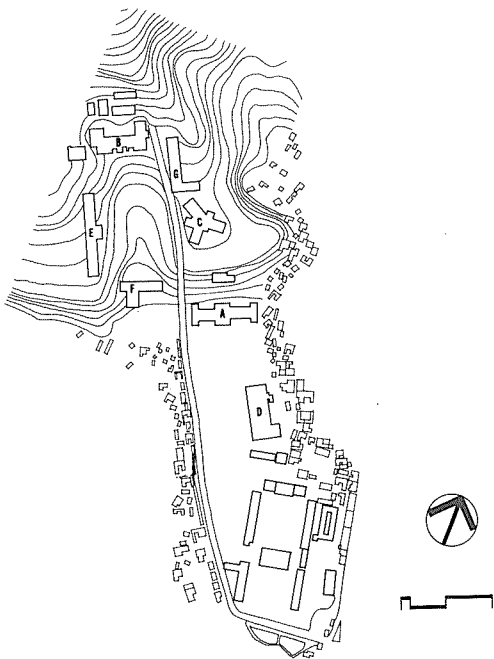
성균관대 명륜동캠퍼스는 조선시대 건축된 성균관의 후면에서 조성된다. 최초로 건축된 석조전(A)는 남동향으로 뻗어내리는 능선에 직각으로 놓이고 있다. 두번째로 준공된 경상대 건물(B)은 계곡의 중심에 계곡방향과 직각으로 배치되며 58년에는 석조전 뒤의 높은 지역에 도서관(C)이 준공된다. 60년대 전반기에 경상대 전면과 좌우측에 대학본부(F), 교수회관(G), 구 대학원건물(E)이 준공되면서 이들 건물은 가운데에 중정을 형성한다.



[도 7] 고려대 本部 캠퍼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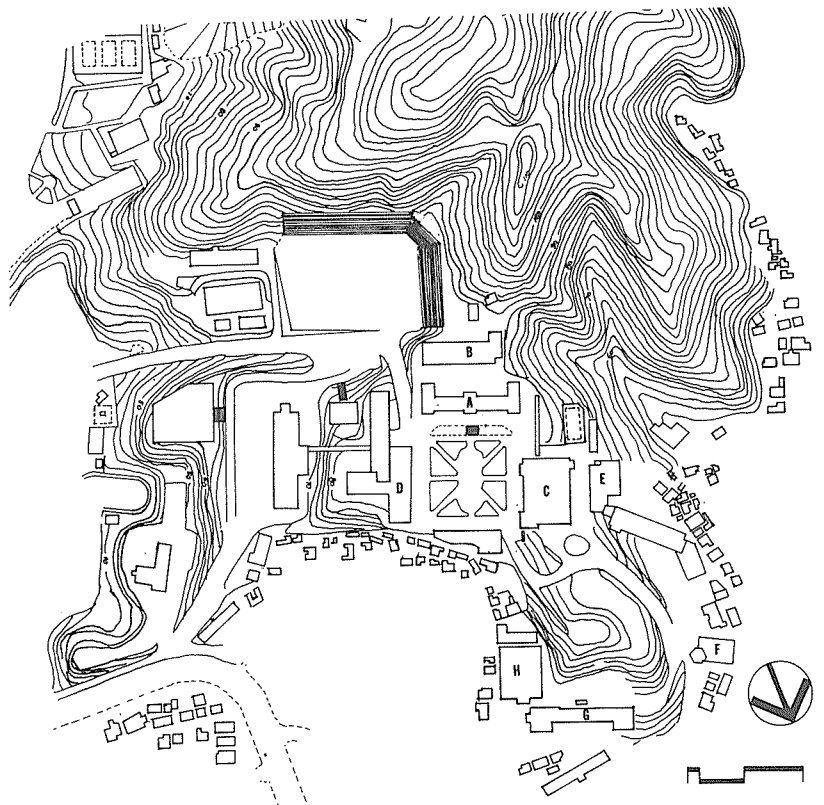
[도 8] 연세대 연희동 캠퍼스 배치도



[도 9] 성균관대 명륜동 캠퍼스 배치도

이 캠퍼스는 지형의 활을 기본으로 하여 각 건물을 배치하였다. 조선시대 건축된 성균관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이 캠퍼스는 지형의 하향경사축인 남동향을 기준으로 하여 각 건물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중심적인 장소에 우선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건물을 배치하였다.

동국대 필동캠퍼스는 북동쪽으로 뺨어내린 남산의 능선상에 위치해 있다. 이 능선은 급경사를 이루면서 내려오다가 학교부지가 있는 곳에서 넓은 부지를 이룬다. 최초로 건축된 본관건물인 석조건물(A)은 캠퍼스의 바로 뒤에 봉우리로부터 내리뺨은 능선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은 캠퍼스배치의 기준이 되었으며 캠퍼스배치를 기본적으로 북동향을 이루도록 하였다. 50년대말~60년대초에 석조전 좌우측에 본관(C)과 중앙도서관(D)이 신축되면서 중앙에 중정을 중심으로 석조전, 본부, 도서관이 둘러



[도 10] 동국대 필동 캠퍼스 배치도

[표 4] 각 캠퍼스의 건설과정

학교명	건 물 명
서울대	법대 도서관(60), 성 베다관(60), 사대 과학관(60), 의대 간호학과 기숙사(61), 공대 불암사(62), 시청각교육관(63), 농대 녹원사(63), 공학도서관(64), 왕릉사(67), 공대 과학관(67), 문리대 이학부(67), 왕영사(68), 치대교사(69), 보건대학원 교사(70), 의대 종합실습실(75), 관악산 캠퍼스(75), 농대교사 및 강당(56), 상대도서관 및 연구실(62), 상대 학생회관(58), 약대본관(60), 약대 제2호관(62), 공대 전력연구소(62), 공대 실험기구기계설치공사(62), 학생지도연구소(63), 합춘회관(64), 공대 공업교육과 실습공장(64), 음대교사(67), 생약연구소(67), 농대 농업도서관(68), 공대교양관(69), 농대 유육가공실습실(69), 의대 도서관 및 실험실(71)
고려대	농대 본관(56), 신관 및 교수회관(56), 공대교사(56), 중앙도서관 증축(58), 농대 실험실(58), 이학부 과학관(60), 서관(61), 교양학부 및 이공학부(64), 실내체육관(66), 기계공학관(67), 학생회관(71), 경영관(72), 중앙도서관(73), 금란실(54), 농대 실험실(57), 농산가공실습실(63), 아세아문제연구소(66), 홍보관(68), 수력공학관(69), 식품공학관(69), 이공대학 동관(71)
연세대	세브란스에비슨관(48), 과학관(56), 도서관(57), 대강당(59), A.V센터(58), 의대교사(61), 체육관(60), 간호학과 학생기숙사(59), 교육관(63), 건설공학관(62), 연합신학대학원(64), 학생회관(68), 간호학과 교사(67), 공대 신축교사(73), 치과대 교사(71), 교양학부 종합교실관(72), 경영학 교실단(71), 여학생기숙사(72), 의대기숙사(72), 한국어학당(63/), 경영대학원(67/), 가정대 교사(68/), 장기원기념관(71/), 한경관 증축(48)
성균관대	석조전(54), 중앙도서관(58), 법과대 교사(59), 교수회관(63), 경상대(57), 본부(62), 구대학원(60), 호암관(68), 수선관(74)
동국대	석조전(56), 과학관(58), 대학본부(58), 중앙도서관 및 대학본부(62), 교양학부 교사(70), 학생회관(71), 사범대학 교사(73), 실내체육관(75), 사회과학관(64), 공학관(68), 교육학관(73)

배치된다. 60년대말~7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캠퍼스의 저지대에 공학관(E), 학생회관(F), 교육학관(G), 종합체육관(H)이 준공되며 이들은 중앙에 있던 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지형에 맞게 위치한다. 이 캠퍼스의 기준점은 산의 능선과 그 앞에 위치한 석조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캠퍼스의 확장은 60년대에는 석조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70년대에는 그 앞 저지대에 있는 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들 각 건물의 성장패턴은 \square 자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단 \square 자형으로 완성되면 다른 장소에서 \square 자형을 완성하여 간다.

2) 배치기준유형의 분석

캠퍼스 배치의 기준은 지형조건에 충실히 적응하여 형성된다.

건물배치의 기준점을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하여 산 능선상이나 계곡상에서 전 캠퍼스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하였다. 능선상에 자리잡을 경우에는 주능선상에서 능선의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에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관이나 도서관을 배치하며, 계곡상에 자리잡는 경우에도 계곡의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에 중요한 건물을 위치시켰다.

배치의 기준축은 지형이 발달하는 방향을 따라서 결정되며, 능선상에 있을 경우 능선이 내리뻗는 방향을 축으로 하고 계곡상에 있을 경우 계곡의 중앙 저지대가 발전하는 방향에 의해서 축이 결정된다.

3) 블럭배치의 유형분석

캠퍼스의 블럭유형은 Γ 자형, \square 자형, 병렬형, 분산형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캠퍼스들은 캠퍼스의 규모나 지형조건에 따라서 이들 유형을 취사선택하여 전체 캠퍼스를 이룬다. 동국대 필동캠퍼스는 \square 자형 배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균관대 명륜동캠퍼스는 Γ 자형과 \square 자형을 혼용하고 있다.

캠퍼스규모가 비교적 큰 서울대 관악캠퍼스, 연세대 대신동캠퍼스, 고려대 안암동캠퍼스는 \square 자형, Γ 자형, 병렬형 등 여러 블럭유형을 조합하여 전체 캠퍼스를 구성한다. 캠퍼스의 중앙에는 Γ 자형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지형상으로 능선에는 등고선을 따라서 병렬형으로 배치하고 계곡이나 평지인 장소에는 \square 자형 배치경향을 보여준다.

비록 여러 블럭유형이 사용되었지만 블럭배치의 기본형은 \square 자형으로 보여진다. \square 자형 배치는 모든 캠퍼스에서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그 전면 좌우에 건물을 병립시키고 최종적으로 처음 건축된 건물의 맞은 편에 건물을 배치하여 \square 자형이 완성하는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5. 캠퍼스배치의 성장유형 분석

1) 지형유형

서울은 지리적으로 산과 산사이를 흐르는 천에 의해서 기본골격이 이루어진다. 산과 천에 의해서 공간이 경계지워지고 산과 천사이에 조성된 공간에 각 시설들이 배치된다.

대학캠퍼스는 산에 입지하여 경사지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지형의 유형은 크게 丘陵型, 溪谷型, 기슭형, 구릉+계곡형으로 이루어진다. 구릉형에 입지한 캠퍼스로는 동국대 필동캠퍼스, 서강대 신수동캠퍼스를 들 수 있고, 계곡형에 입지한 캠퍼스로는 연세대 대신동캠퍼스, 경희대 회기동캠퍼스를 들 수 있다. 기슭형에 속하는 캠퍼스는 고려대 본부캠퍼스, 국민대 정릉캠퍼스,

홍익대 상수동캠퍼스를 들 수 있으며, 구릉+계곡형에 속하는 캠퍼스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대 옥석동캠퍼스를 들 수 있다. 각 캠퍼스는 지형유형에 따른 조건에 적용하여 각기 다른 배치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2) 성장유형

계곡형을 대표하는 캠퍼스는 연세대 대신동 캠퍼스이다. 이 캠퍼스는 캠퍼스 중앙계곡상에 중심도로를 배치하여 전체 캠퍼스를 관통하게 한다. 초기에는 중심도로의 상부에 건물을 배치하며 캠퍼스의 성장과 함께 중심도로의 하부쪽으로 건물들이 배치된다. 그리하여 이 유형의 캠퍼스는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線的인 成長型(Linear Growth Type)을 이룬다. 캠퍼스의 지형적 조건에 의하여 캠퍼스상부에 비하여 하부로 내려가면서 지표고가 낮아지고 가용지가 넓어져서, 전체배치의 성장형은 삼각형 형태를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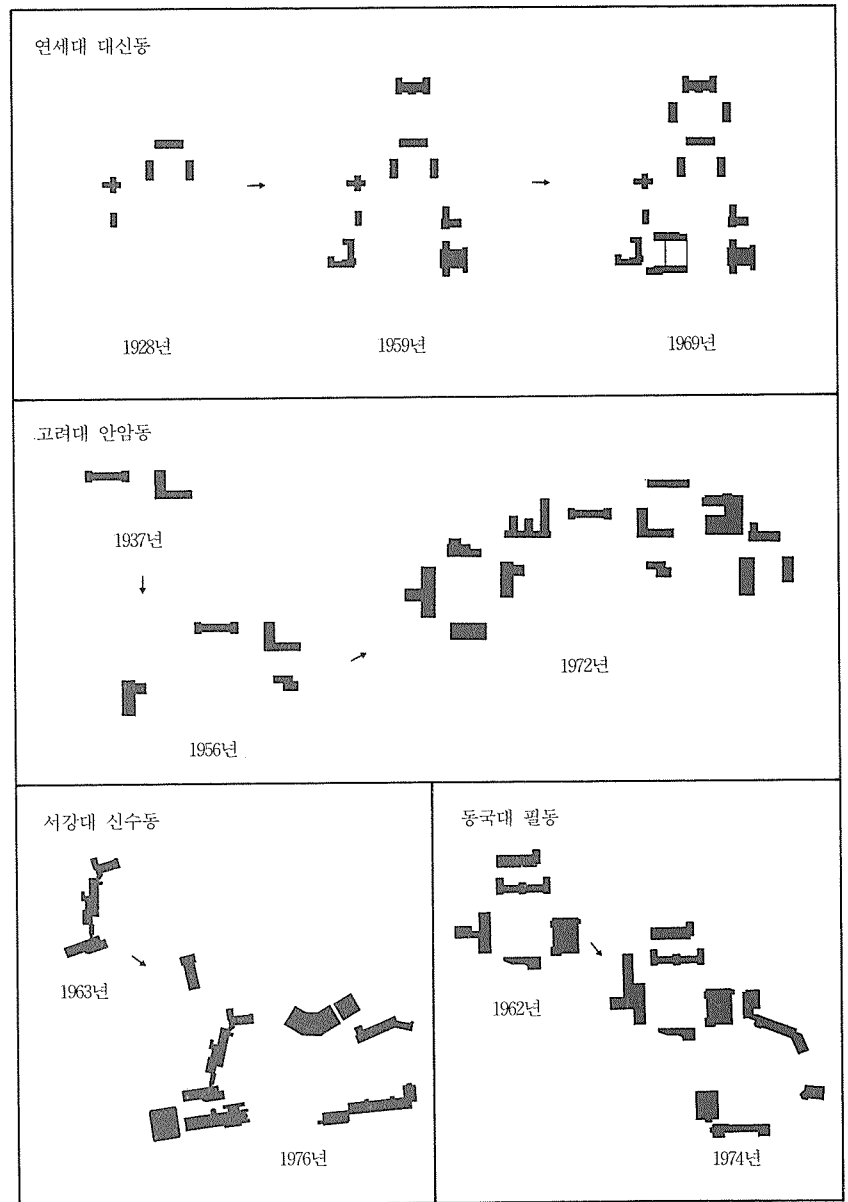
이 캠퍼스는 계곡을 따라서 형성된 중심도로를 골격으로 하는 선적인 성장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캠퍼스의 성장과 함께 피라밋성장형(Pyramid Growth Type)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며, 배치의 기준점을 중심도로 상부에 위치시키고 주성장방향을 하향경사방향으로 한다.

산 기슭형에 입지한 대표적인 캠퍼스는 고려대 본부캠퍼스이다. 이 캠퍼스는 초기에 전면에는 운동장을 배치하고 그 위에 중심적인 시설을 배치하며, 캠퍼스의 성장과 함께 운동장 좌우측에 시설들을 배치한다. 즉, 산의 지세와 캠퍼스의 영역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종축을 기준으로 하여 선적인 성장형을 이루다가 캠퍼스의 성장과 함께 피라밋성장형(Pyramid Growth Type)으로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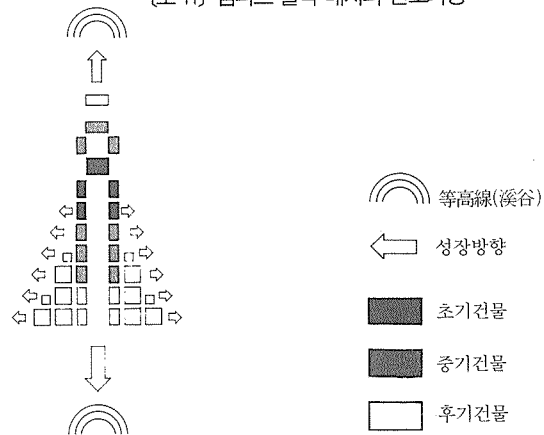
계곡+구릉형을 대표하는 캠퍼스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이다. 캠퍼스의 중앙에 구릉이 내리뻗고 있으며 그 좌우에는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초기의 캠퍼스는 구릉상에 중심적인 건물을 배치하고 그 좌우 계곡에 교사동을 배치하였으며 전체 캠퍼스의 중심을 도서관으로 하였다.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반경 400m 이내에 각시설을 배치하여 캠퍼스의 성장패턴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원심적으로 배치되어 이 캠퍼스는 기능적으로 충실한 同心圓的 成長型(Concentric Growth Type)이 된다.

3) 성장유형의 건축계획상의 특성

지형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성장유형은 선적인 성장형(Linear Growth Type), 피라밋



[도 11] 캠퍼스 블록 배치의 변모과정



[도 12] 線的 성장형(Linear Growth Type)

성장형(Pyramid Growth Type), 同心圓的 성장형(Concentric Growth Type)이 있다.

계곡형의 지형에 입지한 연세대캠퍼스는 선적인 성장형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고려대캠퍼스는 피라미트성장형으로 완성된다. 이들 유형은 배치의 정점에 있는 중심건물에 모든 시설을 종속시키는 位階的 形態(hierarchy form)를 형성하고 있다. 캠퍼스의 성장이 중심건물로부터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시설과 중심건물이 멀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하며, 이들 유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캠퍼스의 상부에는 위계가 높은 본관을 배치하고 그 하부에 새로운 중심건물로

학생회관이나 도서관을 배치한다. 즉, 캠퍼스의 확장과 함께 副核的인 기능이 배치되면서 多核構造의 캠퍼스가 된다.

동심원적 성장형의 서울대 관악캠퍼스는 캠퍼스의 중앙에 중심기능을 배치하여 주변시설과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적인 형태(Functional form)를 형성한다. 이 캠퍼스는 캠퍼스의 성장에 따른 중심시설과 주변시설의 거리가 멀어지는 비효율성이 피라미트성장형이나 선적인 성장형에 비하여 덜 발생되지만,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더 확장할 경우에는 각 주변영역마다 부핵적인 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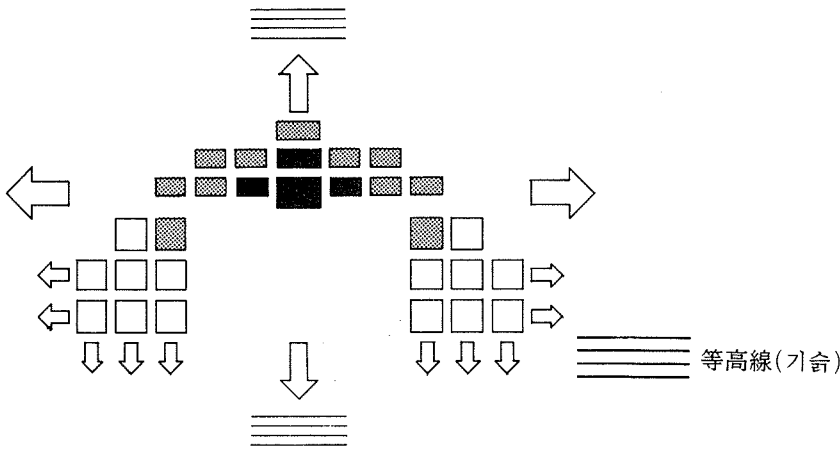
6. 맺음말

대학캠퍼스계획은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관련건축가의 수준, 다른 건물유형에 비하여 그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의하여 한국근대건축의 대표적인 건축계획 특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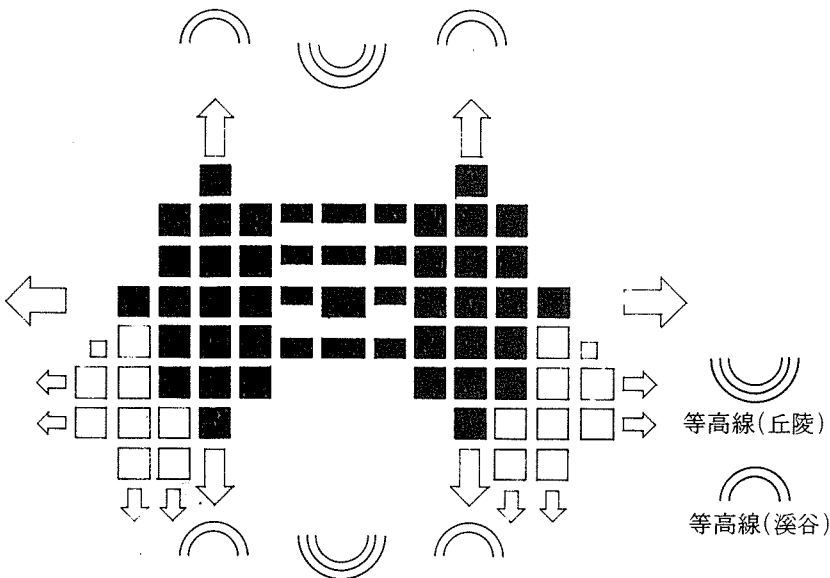
서울에서 건설된 캠퍼스는 서울의 주요 산줄기에 입지하였으며, 남향경사지를 선호하였다. 이들 캠퍼스가 입지한 장소는 계곡형, 구릉형, 기슭형, 구릉+계곡형의 지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지형유형의 잠재력에 의하여 각 캠퍼스들은 서로 다른 배치성장유형을 보여준다. 계곡형에 입지한 캠퍼스는 선적인 성장형을, 기슭형에 입지한 캠퍼스는 피라미트 성장형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위계적인 형태를 배치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릉+계곡형에 입지한 캠퍼스는 동심원적 성장형을 보이며 기능적 형태를 배치의 기본으로 한다.

■ 참고문헌

- 1) 金光禹, 대학 캠퍼스계획의 분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9
- 2) 金熙春, 서울을 생각한다, 대한건축학회지, 19권 65호, 1975. 8
- 3) 無涯 李光魯教授 回甲記念 作品集, 1988
- 4)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보고서, 1972
- 5) Dover, Richard P., Environmental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London, 1969
- 6) _____, campus planning,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Cam., 1963
- 7) Turner, Paul V., Campus, An American Planning Tradition, MIT Press, 1984



[도 13] 피라미트 성장형(Pyramid Growth Type)



[도 14] 동심원적 성장형(Concentric Growth Type)